

## 기후위기 대응·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금속노사 온도 차 13일 2025년 4차 중앙교섭 열어 ... 금속노조 “기후 위기 대응해야 기업 생존”



금속산업 노·사가 기후위기 대응과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사측은 제시안 준비 시간을 갖겠다고 알렸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13일 오후 경북 경주 디에스시에서 2025년 4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이날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에 대한 두 번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시작하며 “6월 3일 새 정부가 시작된다.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산재 사고가 반복해 일어난다. 사용자들은 처벌을 피해 간다. 올해 금속노조 요구인 작업중지권이 중요한 이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 라고 주문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교섭 인사말에서 “사용자들도 기후 위기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노사 교섭에서는 접근 과정이 필요하다. 금

속노조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나쁜 경제 상황 속에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금속노조 설명을 들어보겠다” 라고 밝혔다.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과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이 노사 교섭위원 대표로 올해 중앙교섭 요구인 기후 위기 대응과 2026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난 3차 교섭에서는 올해 중앙교섭 세 가지 요구 중 첫 번째인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먼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기후 위기 대응 요구가 올해 다뤄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궁금하다며 요구안 제출 배경을 물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산업적으로 경쟁력, 수입국 규제, 글로벌기업 요구 등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세계 시장 진출 여부가 걸려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부품사에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제출을 요구한다. 기업 생존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은 필수” 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 측은 이번 기후 위기 대응 요구를 실현하려면 완성차 등 원청 투자와 정부 협력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상민 실장은 “원청 투자와 정부 협력이 선 후 문제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책 지원 사례를 볼 때, 결국 금속 노사가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와 원청 역할을 충분히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묻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도입으로 전력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및 조절 ▲온실가스 걸러내고 포집·저장하는 기술 도입 ▲고효율 운전 시스템으로의 교체 ▲노후화된 설비 교체로 생산성 제고 ▲병목 공정 개선으로 생산공정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여러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 이유를 물었다. 박근형 회장은 “자영업 폐업률이 치솟고 최저임금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는 사업주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도 금속노조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고 싶다” 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2026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11,210원을 요구한다.

**“자영업 폐업·경영난, 최저임금 탓 아냐”**

김상민 정책실장은 “금속노조 역시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현실 인식은 한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경영난은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라고 꼬집었다.

김상민 실장은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에도 못 미치고 실질임금이 하락했는데도 무조건 임금을 억누르자는 것인가. 임금 인상 억제는 제조업 발전을 저해할 뿐” 이라며 “생활임금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는 필수다. 지속적인 제조업 발전, 양질의 노동력을 위해 금속 노사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부 지원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라고 강조했다.

올해 중앙교섭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아무리 이윤 추구가 우선이라지만 사용자로서 사람과 사업장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비용이 들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날 교섭이 열린 경주의 정진홍 지부장은 노사 교섭위원들을 향해 “노사가 동반 성장하는 교섭을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와 회사는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이제 올해 중앙교섭 요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자” 라고 당부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요구안 설명을 모두 들었다. 기후 위기 대응 요구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 제시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 라고 전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5차 중앙교섭을 20일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 회의실에서 연다.

